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60호 【루계 제25203호】 주체105(2016)년 2월 29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자

우리 혁명은 사상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의 위력으로 백승의 진군로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혁명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적들을 제압하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전의 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야 할 때이다.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오늘의 70일전투는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을 믿고 일어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들로 육성하며 모든 부문을 자력자강으로 추켜세우고 온갖 낡은 사상관점과 일본새를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일대 사상전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대고조격전장들을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도가니로 끓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사상의 힘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인민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이 백승의 력사만을 수놓아온 우리 혁명의 고귀한 체험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의 도약기에 확고히 들어섰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올해의 시작부터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진격해나아가고있다. 이 격동적인 현실은 주체의 사상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사상의 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위용을 만방에 힘있게 떨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라!》, 공동구호에 제시된 이 전투적구호는 우리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투쟁의 기치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벼려 사무치게 간직한 참되고 준비된 사상전의 기수, 전초병들이 있기에 대고조격전장들에서는 혁명의 북소리, 진격의 나팔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오늘의 사상전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전면적인 사상공세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고 핵이다.

70일전투에서 전면적인 사상공세의 목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것이다. 1974년도에 진행된 70일전투때에도 우리 당은 집중적인 사상공세로 수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였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뼈에 새기고 백절불굴의 혁명신념과 의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킬 때 70일전투의 승리를 확고히 이룩할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정책에 립각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습벽을 붙이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사상전의 열풍속에서만 남김없이 과시될수 있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70일전투에서 그 어느때보다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천만군민을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혁명적실천으로 받드는 사상의 제일동지, 신념의 제일전우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

오늘의 사상전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드세찬 집중포화이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다.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루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가는 군대와 인민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과학이고 승리이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언제나 일치하다. 문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대중을 어떻게 발동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어떻게 폭발시키는가 하는데 있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참신하고 실효가 큰 정치사업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사람들이 맥을 놓고 주저앉았을 때에는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안겨주고 남을 쳐다보는 기색이 보이면 연길폭탄정신을 심어주어야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닭알에 사상을 채우면 바위도 깰수 있고 자동보총에 사상을 만장약하면 그 어떤 현대적무기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지론이다. 우리는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이 창조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당과 온 사회를 전례없는 대중적영웅주의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격형으로 편성된 사상진지에서 울려나오는 사상전의 힘찬 포성이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뢰관이 될 때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구들마다에서는 세기를 주름잡는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가 끊임없이 창조될것이다.

오늘의 사상전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기 위한 일대 섬멸전이다.

위대한 사상과 정신으로 만난을 박차고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하며 일행천리해야 하는 오늘 순간의 안일과 해이,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백배, 천배의 힘을 모아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70일전투에서 사상전, 섬멸전의 파녁은 요령주의, 보신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관점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있다. 구태의연한 사고관점과 일본새를 가지고서는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시대에 따라설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앉아서 조건타발, 우는소리나 하는 패배주의한숨소리, 실속이 없고 거창다짐만 하는 형식주의껍발림, 적극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지 않고 현상유지나 하려는 보신주의울타리를 비롯하여 혁명의 전진에 장애물이 되는 낡은 사상관점과 그릇된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사상전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반공화국고립압살, 제재봉쇄짝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어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때 온 나라에 전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팍 차넘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백승의 기치인 주체의 사상론을 더 높이 추켜들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에서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한다.

천만군민을 우리 수령제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5대교양에서 기본을 이루는 위대성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며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사업을 지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응집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거인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

반제계급교양의 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지금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성공에 기절초풍한 미제와 온갖 제급적원쑤들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의 전진을 기어이 가로막아보려고 단말마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미제, 피를 즐기는 흡혈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성과 악랄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계급의 눈이 흐려지면 신천땅의 피의 교훈이 되풀이될수 있다. 오늘의 70일전투에서 경제전선에서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전만대중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다. 당사상전선에서는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만장약한 계급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침략자들의 야수성과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을 순간도 잊지 않도록 사상전의 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방법,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당의 위력이자 당조직들의 전투력이며 당의 령도력이자 당조직들의 지도력이다. 1974년도에 벌어진 70일전투는 사실상 하나의 대사상전이였다. 당조직들이 살아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대중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심어주기 위한 실효성이 높은 정치선전과 기동성, 호소성, 전투성, 생동성, 구체성이 구현된 화선식경제선동이 활발히 벌어져 초소와 일터, 기대마다에서 혁신의 봉화가 세차게 일어났다. 각급 당조직들은 1970년대의 그 기세, 그 본때로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사상사업을 오분열도식, 행사식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으로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진행하여 사람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당의 사상을 체득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70일전투기간에 혁혁한 성과를 올리는 단위와 일군들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강화하여 경쟁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도처에서 파감히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70일전투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맡은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일군, 몸이 열조각, 백조각 나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일군,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일군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현장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벌려야 한다. 경직된 사고방식과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당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추켜세우기 위한 과학적방법론과 묘술을 부단히 탐구하고 적용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과 어울리며 대중을 각성시키고 당원들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도록 하며 청년들이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으로 70일전투에서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사상중시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앞세워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사상전, 선전선동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오늘의 70일전투를 대비약, 대혁신으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보안부 일군들과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은 서성구역 와산소학교를 새로 훌륭히 일떠세우고 책걸상을 비롯한 교구비품들을 성의껏 마련해주었다.

황해남도의 차광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은 분계연선지역에 있는 옹진군 제작교급중학교의 통학버스를 스스로 맡아 수리해주고 많은 교육기자재들과 학용품, 생활용품들을 보내주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더 활짝 꽃피웠다.

신의주물정화사업소 로동자 최정순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지니고 50여년간 도시경영부문에서 일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애국의 땀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의 자녀들인 림철, 림옥화, 림옥희, 림옥실도 당의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온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인민들의 행복을 꽃피우는 헌신의 길에서 삶을 빛내이고있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것을 혁명적도덕의리로 간직한 인민보안부 산하단위 로동자 최은향은 지난 15년간 특류영예군인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에 떠받들려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이바지할 마음안고 평양면옥 로동자 김은미는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는 전투현장에서 야간지원돌격대원으로 일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집단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정기종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훈장수훈자이며 김일성상계관인 4.15문학창작단 작가 정기종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8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필리핀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필리핀준비위원회가 16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리핀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라파엘 마리아노, 국회의원 루즈비민다 일라간을 비롯한 인사들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을 규탄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을 적극화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중앙뜨락에 마음과 정을 잇고 사는 우리 인민은 영원히 승리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받아안은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입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부부장 정민권은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삶의 보금자리를 사수하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는 성스러운 혁명을 보위하려 용약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만원해나선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은정넘친 감사문을 보내주시였으니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어든다.

우리 도에서도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이 조국보위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제국주의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백두산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반제계급의지는 70일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오늘 더욱 억세게 벼려지고있다.

우리는 피끓는 심장들에서 용암처럼 치솟는 분노를 최고의 분발로 전환시켜 대고조격전장에서 총폭발시킴으로써 당중앙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금 떨쳐 애국충정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국보위초소에 만원한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은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신천군 신천고급중학교 교장 김은숙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문을 받아안고 학생들과 교원들모두가 무한한 힘과 열정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적들의 극악무도한 발광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성전에 총궐기한 신천의 아들딸들의 복수열기는 노호하는 함성으로 울려퍼져 지금 력사의 땅 신천을 진감하고있다. 피에 절은 신천땅에 태를 묻고 자라난 세 세대들이 할아버지세대들의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겠다고 벼르고있다. 이런 복수자들이 있는 한 미제는 자기의 씨종자도 남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70일전투에 떨쳐나선 학교의 교육자들과 함께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며 학생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무장한 투철한 전위투사들로 키워나가겠다.

영웅정평고급중학교 학생원광위의 어머니 최향순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하였을 때 아들은 최망했던 대학이 아니라 조국보위초소로 달려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처럼 삶을 빛내일 결의를 안고 인민군대입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평범한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나 부럼없이 배우며 자라는 나날에 7.15최우등상수상자의 영예도 지니고 마음껏 희망을 꽃피울수 있게 해준 고마운 당의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결의다지던 아들이였다.

앞으로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미제와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침략의 아성을 완전소탕해버리고 환희로운 전승의 날을 안아오는데 이바지하도록 적극 고무해주겠다.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연구사 박은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분에 넘치게도 감사문까지 보내주실줄은 정말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격동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어머니당과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자란 우리들이 존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 용약 떨쳐나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도리이고 새 세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한없이 고귀한 그 믿음, 그 사랑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성전에 나선 심정으로, 원쑤격멸의 의지로 열혈의 심장을 펄펄 끓이며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 빛내여감으로써 우리 당 제7차대회를 멋지게 맞이하겠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한다.

안변림산사업소 로동자 김태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문을 받아안은 자기의 가슴은 지금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서는것은 이 나라 공민의 본분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듯 감사문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림산사업소의 로동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전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반미, 반제계급적원쑤들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의 전진을 기어이 가로막아보려고 단말마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미제, 피를 즐기는 흡혈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성과 악랄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계급의 눈이 흐려지면 신천땅의 피의 교훈이 되풀이될수 있다. 오늘의 70일전투에서 경제전선에서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전만대중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다. 당사상전선에서는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만장약한 계급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침략자들의 야수성과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을 순간도 잊지 않도록 사상전의 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분조장 림성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뜨거운 감격속에 받아안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는 이 나라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우리들에게 감사문까지 보내주시니 이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길이 없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애국충정의 한마음으로 받들어가야겠다는 열의가 더욱 용솟음친다.

나는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성전에 열렬히 탄원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겠다.

언제나 당중앙뜨락에 마음과 정을 굳게 잇고 우리 당이 키워준 불굴의 정신력과 자강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올해농사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릴데 대한 당의 뜻을 기어이 꽃피우는데 순절한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다 바쳐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받아안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열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정 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1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또 하나의 단절의 서사시, 감동깊은 혈연의 화폭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원수님과 로동계급!

새로운 만리마시대가 펼쳐지는 오늘의 감격을 말할 때, 70일전투의 북소리 요란히 울리는 내 조국의 들끓는 기상을 가슴에 안을 때 더욱 뜨거워지는 열화의 감정이다.

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올해의 첫 진군길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전해진 우리 원수님의 축하전문,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안아주고 업어주고싶은 이 시대의 수많은 위훈자들가운데서도 로동계급에게 제일 먼저 보내신 뜨거운 축하전문이다.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전례없는 세멘트생산성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한 상원의 미더운 로동계급, 이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추돌이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교무격려는 그대로 이 나라 로동계급모두가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이며 최대의 신임이다. 혁명의 승리를 내다보는 우리 당의 배심이 왜 그리도 든든하며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온 나라 로동계급앞에서 하신 연설과도 같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으로 장쾌한 서막을 올린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로 나라의 만아들을 부르는 최고사령부의 돌격나팔소리와도 같다.

그이의 마음속엔 이렇게 1년 365일 하루와 같이 로동계급의 모습이 박 차있다. 그 어느 크나큰 경사에 접하시어도 언제나 로동계급의 수고부터 먼저 헤아리시며 로동계급이 가꾸어낸 훌륭한 업매라고, 이런 주체혁명의 핵심력량이 있어 우리의 10월 10일, 로동당생일이 더욱 빛나는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속에서 또 하나의 로동계급칭가와도 같은 우리 로동계급의 새로운 이름이 태여나 천만의 심장을 두드리고있다.

그 이름은 다름아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시는 최상최대의 믿음이고 최고의 표창이다.

불러보면 단 한줄, 그러나 여기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억척같이 받들어올리는 귀중한 사람들, 조국과 인민이 끝없이 신뢰하고 존대하는 위훈의 주인공들의 군상이 부각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그지없이 소박하고 정겨운 사람들이다. 조국땅 북변 하늘아래 첫 일터로부터 심부막장과 아슬한 산중철탑, 먼바다 어장에 이르기까지 제일 멀고 깊고 험한 곳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조국을 받들어 한몸을 깡그리 묻어가는 뿌리같은 모습들이다.

언제 한번 소리쳐 자기 위훈을 말한적 없는 순박한 인간들, 그러나 그들의 발자국은 어디서나 보이고 그들의 땀방울은 늘어나는 조국의 재보속에 보석처럼 빛을 뿌린다.

새겨볼수록 산악같은 모습,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궁지높이 노래하지 않을수 없는 우리 로동계급이다.

보라.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앞장에 과연 누구들이 서있는가를.

위대한 장군님의 넋원을 받들어 만리대공에 조선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별—주체위성을 쏴올린 숨은애국자들도, 동해포구의 《이채어경》이며 양어바람, 전설의 대번영기로 우리 수령님들 기뻐하시게 인민의 웃음꽃을 더욱 만발하게 피워가는 선구자들도 백두산혁명강군을 따라 주체혁명의 핵심으로 위용떨치는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자력자강의 눈부신 실천으로 증명해가는 위훈자들도 로동계급, 바로 이들이다.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 땅속에는 우리 지하전동차.

조석으로 변이 나는 이 세월의 표제와도 같은 자력자강의 대명사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황철의 주체철, 천지은활유, 천리마타일, 《금컵》식료품도 현대화이자 국산화라는 우리 당정책을 옹위하여 피땀으로 안아올린 고귀한 산물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넋원을 변함없이 받드는 충정에 있어서 최고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웅성에 있어서도, 조국을 받드는 애국과 량심에 있어서도 최고이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조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는 나라의 맏아들의 앞가슴에 영웅메달을 달아주시듯, 온 세상이 보란듯이 위훈의 금자탑을 세우시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그 이름도 성스러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세상에 이런 말은 없다. 지구상에 로동계급의 력사가 흘러 수백년, 장구한 세월의 그 어느 갈피에도 두분의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운 로동계급은 있어보지 못하였다.

억제의 세상 뿌리째고 새 세계를 세우려는 피압박근로대중의 피맺힌 투쟁과 더불어 그 이름은 인류사에 선진적인 부대, 혁명의 위력한 력량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세대들의 피스민 붉은기가 내려워지는것과 동시에 진정한 로동계급의 모습도 사라졌다.

오직 혁명의 붉은기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자기의 이름과 존엄, 자기의 힘과 기상을 더욱 높이 떨치는 계급전의 투사들은 조선로동계급뿐이다. 자랑스러운 그 모습을 두분의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세계우에 우뚝 솟려세운것은 력사에 특기할 경이적인 사변이 아닐수 없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는 우리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지로만 심장이 맥동치는 그분들을 닮은 수령의 전사들이라는 뜻이고 수령님들의 한생의 넋원을 창조의 마치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이라는 믿음의 최절정이다.

불변의 혈맥처럼 이어진 뜻깊은 부름이 말해주듯이 수령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 조선로동계급의 어제와 오늘이고 더욱 긍지에 넘칠 미래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그 출발부터가 류다르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여난 수령님의 아들딸들이 바로 우리 로동계급이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로동계급은 불파 멸※!

일제의 철쇄에 묶이여 몸부림치던 짓눌리고 상처입은 어린 생명체였다.

암흑을 휘젓는 앙상한 손길처럼 구원을 갈망하던 이 나라 로동자들을 품에 안아 조국의 번영을 떠받드는 핵심의 강철대오로 내세워주신 조선로동계급의 삶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 수령님의 그 슬하에서 로동계급은 혁명의 주인된 자각을 깨달았고 자력갱생하는 법도 배웠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옹위하는 혁명성도 키웠고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다.

동무들이야말로 해방된 조국의 운명을 량어깨에 걸머지고나갈 기둥이며 주추돌이요!라고 하시며 하늘같은 그 믿음을 안으시고 반동놈들이 던진 수류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로동자들과 함께 행진하시던 그 모습, 로동계급의 일터라면 불발탄이 놓여있어도 서슴없이 들어서시던 그 발자국, 정녕 그것은 그대로 혁명을 위한 길에 한몸을 깡그리 내대는 결사의 투지를 가르쳐준 말없는 강의였고 수령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려는 로동계급의 인생관이 자리잡은 고귀한 체험의 나날이였다. 몸소 쇠돌도 일어보시던 그이의 땀젖은 손길에서 조국을 위한 로동에 몸을 적시는 근면성도 터득했다. 뜨락또르가 뒤로 간다는것은 앞으로도 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는 믿음의 그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떨쳐나서며 자강의 정신력도 키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한평생 그렇게 로동계급과 한전초에서 생사를 같이하시며 걸음걸음 떠밀고 이끌어주시였다.

일찌기 26호선반과 인연을 맺으신 그 나날에 벌써 로동계급의 명예를 고수하며 영원히 동무들과 한대오에 서있겠다고 전우의 뜨거운 맹세를 남기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강제의 눈보라를 뚫고 로동계급을 찾아가시였고 폭우가 쏟아져 길이 막히면 강물속을 헤쳐가시듯 삼복철강행군길을 이어가시였다.

조국의 운명을 건 절대의 믿음을 안겨주시며 자기 힘으로 세계를 딛고 나가는 발걸음새를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한 강성국가건설의 핵심부대로서의 값높은 성장의 년륜을 새겨왔다.

미덥고도 용감한 그들의 로력적위훈에 받들려 조국은 얼마나 눈부신 번영을 이룩하였던가. 빈터우에서 전국의 터전을, 재더미에서 천리마를, 자립의 마치로 사회주의공업화를,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우리 당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조선의 귀중한 혁명정신, 유명한 기적들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한길만을 걸어온 로동계급의 고귀한 창조의 산아였다.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사는 이렇게 엮어져왔다. 한마디를 하여도 수령의 감정으로 말하고 한걸음을 걸어도 수령의 뜻으로만 내짚는 수령결사옹위의 불타는 심장, 일편단심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수령의 부름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단숨에 메운 결사관철의 힘찬 발걸음,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세기적인 기적들을 제힘으로 기어이 창조한 자력자강의 본때…

이것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변의 본태이고 조국을 받들어올린 기적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맥박치고 수령님들께서 부어주신 피와 넋이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놀뛰는 태양의 아들딸들, 이런 충직한 혁명의 대부대를 위력한 백승의 무기로 여기시는것이 우리 원수님께서 확고한 신조로 간직하고계시는 로동계급에 대한 믿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로동계급은 강성국가건설의 길에서 언제나 굳게 믿으시는 마음의 기둥이다. 나라가 허리를 펴야 할 때, 고난의 장막을 기어이 제껴야 할 때 우리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로동계급을 찾아가신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새로운 기적과 변혁을 일으키실 때마다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계급속에 깊이 들어가군 하신다.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최강의 핵억제력이고 황금해의 파도, 국산화의 열풍이 전만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적을 로동계급에게 통채로 안겨주시며 시대가 자랑하는 위훈자들로 내세워주시였다.

자나깨나 그이의 마음속엔 로동계급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최한하고 눈부신 강성원이며 로동자궁전도 일떠세워주시였고 혁명의 천만국사가 접쌓인 그 바쁘신 속에서도 로동계급의 부탁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현판에 새길 친필을 안고 일터에 찾아오시였다. 그렇게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방직공들, 청복땅의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며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였고 미더운 로동계급에게 찬성의 한표를 바치시며 더없는 행복감에 잠기군 하시던 우리 원수님 아니시였던가.

우리 원수님처럼 로동계급을 한없이 존대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그렇듯 심장으로 뜨겁게 헤아리시는분은 없다. 경비행기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시며 위험한 하늘길에도 오르시였고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개발사업도 그런 마음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행도를 보좌하시던 나날에 벌써 《내가 지켜선 조국》이라는 뜻깊은 노래와 더불어 자강도로동계급과 혈연의 정을 맺으신 그이, 로동계급과 함께 계시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인민극장의 수수한 좌석에 앉으시어 그들과 나란히 공연도 관람하시였다.

로동계급에 대한 믿음과 정이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자강도를 찾으셨던 그 나날 점심시간도 잊어가시며 손수 연설문까지 한자한자 쓰시였으랴.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과 함께 앞으로 혁명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된다고 하시며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수놓아가시는 위대한 어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세상에 이렇게 우리 원수님처럼 로동계급과 잘 어울리시는 위대한 정인, 근로하는 인민의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는 뜨거운 인간, 로동계급의 힘을 최대로 분출시키시는 위대한 령도자는 없다.

참으로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이야말로 조선로동계급만이 지닌 특전이며 모든 영광과 행복의 마를줄 모르는 원천이다.

2

로동계급의 사명이 더욱 무거워졌다.

핵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수소탄보유국으로까지 올라선 오늘 우리의 투쟁목표의 하나는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는것이다. 나라의 경제를 백두산대국의 존엄에 걸맞게 더 높이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자고 해도 경제발전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야 할 로동계급이 무섭게 들고일어나 폭풍처 내달려야 한다.

만리마라고 70일전투속도로 내달리는 지금이야말로 로동계급이 자기의 영웅적본때를 다시한번 과시해야 할 시대, 무적의 행군시기 패배주의자들을 프레스로 모두 짓뭉개버리겠다고 추상같이 부르짖으며 장군님의 굳건한 기둥이 되여 당을 옹위해나섰던 사람들도 우리 로동계급이였다.

충실성의 그 전통이 오늘도 맥맥히 흐르고있다.

2013년 12월을 잊을수 없다. 미제와 그에 편승한 무리들이 그 무슨 《유사시 조기대응》을 떠들며 전쟁의 화약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던 그때 과연 누구들이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당중앙결사옹위의 뢰성을 터치였던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로동계급이였다. 우리 원수님께 풍요한 가을과 같은 물고기대풍으로 더없는 기쁨을 드리고 고무를 드린 위대한 김정은시대 로동계급의 일편단심을 전하며 내 조국의 바다는 오늘도 잠들줄 모른다.

언제 어디서나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가 되여 결사옹위의 성벽을 이루었던 조선로동계급이여, 자랑스러운 그 전통을 이어 김정은결사옹위의 제1선투사로 살며 싸우라.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당중앙결사옹위이자 곧 생산돌격전이고 대고조의 불길이다.

전화의 나날 석수흐르는 평도속에서 끊임없는 시험시적으로 고막이 터졌어도 충성을 멈추지 않았고 자욱한 연기에 머는 목표판이 보이지 않자 불뭉치를 손에 들고 목표판을 밟히며 무적의 총대를 떠려낸 군자리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수령이 준 과업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진리, 로동계급의 충정은 증산의 땀방울로써만 증명된다는 말없는 강의가 아니던가. 천리마시대 우리 로동계급이 대고조의 불길속에 마련한 굴착기, 뜨락또르, 자동차와 같은 《무쇠장갑차》들로 당과 인민의 단결을 좀먹는 혁명의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짤아놓겠듯이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충실성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눈부신 로력적성과로 시대와 인민앞에 검증되군 하였다.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격동의 해이다. 조선로동계급의 당성, 혁명성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발휘되여야 할 오늘의 력사적시점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스스로 높이 제기한 목표가 있다.

인민군대가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자!》라는 구호를 들었다면 우리 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충정의 70일전투의 자랑찬 대고조성과로 결사보위하자는것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이 시대 로동계급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다.

벌써부터 대고조의 홍할 징조가 보인다. 자립강국의 억척기둥인양 솟아난 우리 식 산소열법용광로에서 황철의 로동계급이 뿜아낸 주체철도 좋고 50만산 대발파로 새해의 첫 진군에 나선 철산봉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남흥의 주체비료소식도, 방직부문의 준마처녀들이 일으켜가는 다기대운동의 경쟁열풍도 가슴을 뛰인다. 그 어느 한전과 심산유곡의 벌목지, 두줄기 은빛궤도와 남바다 어장에 가보아도 대고조의 선봉에 설 불타는 의지가 이글거린다.

하늘이 무너져도 억센 철탑처럼 떨치고 서서 오늘의 투쟁에서 수령의 존함을 지닌 조선로동계급의 영예를 다시한번 높이 떨치자.

자강력제일주의, 이는 우리 로동계급의 또 하나의 이름이고 필승의 기치이다.

자강력은 로동계급이 대를 이어가며 넘겨주고 넘겨받는 바통이다. 현대화이자 국산화라는 오늘의 우리 당정책을 앞장에서 관철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 로동계급이다.

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 그것은 결코 억대의 자원이나 자금이 아니다. 어제도 오늘도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것을 원치 않는 우리 로동계급의 자존심이고 자력갱생의 정신력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짓부시며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그때처럼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자력으로 끝끝내 한생시키고 새해의 아침 첫 운행의 고고성을 울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이 시대에 던진 충격은 자못 크다.

누구도 우리가 그것을 해내리라고 믿지 않을만큼 조건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을 걸고 끝끝내 해냈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일했지만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는 그 목소리, 지구, 장비도 부족한 조건이였지만 자체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말겨진 과제를 불과 수십일만에 해냈다는 불같은 체험의 토로…

이 비상한 실천은 그대로 조건타발을 앞세우는 나약분자, 비겁분자, 패배주의자들의 가슴에 박는 비수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잘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한사코 번영을 가로막으려고 집요하게 날뛰는 원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것이 바로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로동계급의 이 자강력이다.

우리의 최강의 국력앞에 기절초풍한 제국주의자들이 이를 갈며 더더욱 악착한 제재그물을 조이려고 날뛰고있지만 천만에, 우리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놈들의 지랄발광을 발뒤꿈치의 썩살만큼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이 땅에는 불가능이란 말을 이미 자기의 사전에서 말끔히 지워버린 자력자강의 투사들인 우리 로동계급이 있다!

로동계급의 인테리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 당이 바라는 로동계급은 혁명적인 계급일뿐이니라 최첨단을 틀어쥔 로동계급, 선진문명의 체현자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의 맨 앞장에는 마땅히 우리 로동계급이 서야 한다.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들이 다투어 솟아나는 지금 과학의 고삐를 틀어쥐지 못하면 위훈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일터의 참된 주인으로 될수도 없다. 과학기술전당과 과학기술보급실을 지혜의 샘줄기로 삼고 다박다박한 로동계급으로 하루빨리 준비하여 공업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떠맡아야한다.

창조와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발휘되는 로동계급의 그 모든 모범을 온 나라가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 로동계급의 삶과 투쟁의 철학은 명백하다.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들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로동계급의 인생관을 관통하고있는 기본핵이고 영웅적삶의 원천이다. 당의 믿음 그 하나만을 인생의 제일 큰 재산으로 간직하고 사는 티없는 충정, 나라의 큰 짐을 걸머지고 불덩이같은 땀방울을 뿌리면서도 자기를 위해 남겨놓은것이란 하나도 없는 고지식성,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열백밤을 때며 일해도 성차하지 않는 끝없는 일욕심, 남보다 허리띠를 깊숙이 조여매면서도 붉은기를 틀어쥔 주먹만은 풀지 않는 투철한 사회주의신념…

모두다 누가 보건말건 어머니조국과 심장을 맞대고 당의 숨결로만 사는 로동계급처럼 순결한 량심을 다 바쳐 싸운다면 조국청사에 길이 남을 시대의 영웅으로, 애국자로 되리라.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설레인다. 행복이 파도쳐오는 실로 가슴벅찬 전변을 총대와 함께 마치로 다계단으로 일으켜가는 위대한 이 시대의 모습에.

로동계급의 무쇠망치에 제국주의대갈통이 박살날 그날이 보이고 바야흐로 펼쳐질 최후승리의 려명이 가슴에 어려온다.

조선의 영원한 힘인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여.

주체혁명의 핵심부대답게 오늘의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자랑찬 승리자가 되여 영광의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을 지닌 세상에서 제일 권위있고 영광넘친 조선로동계급의 이름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백승사를 금문자로 아로새기라.

박 옥 경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성전에 떨쳐나선 인민의 강용한 기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발표후 이틀동안 150여만명의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 인민군대입대, 복대 탄원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감히 건드려보려는 남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극악무도한 발광에 활화산같은 분노와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폭발시키며 온 나라의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이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성전에 총궐기해나서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된 후 단 이틀동안에 전국적으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열렬한 애국충정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열혈의 심장들을 세차게 끓이며 타번진 참군열풍은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여 천겹만겹의 성벽을 쌓은 위대한 인민, 목숨보다 귀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며 원쑤들을 요정내고야마는 영웅조선의 장한 아들딸의 높은 정신세계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처럼 투철한 반제혁명정신을 지니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련전쾌승을 떨쳐온 인민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민이 있는 한 선군조선은 오늘도 례일도 영원히 승리할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충정의 70일전투에 진입한 천만의 가슴마다에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더해주며 총진군대오의 혁명열, 애국열을 더욱 격앙시켰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은 중대성명에 접하자마자 모임들을 열고 하늘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미제와 그 주구 박근혜역적패당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멸적의 의지를 토로하였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조국보위성전에 남먼저 떨쳐나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는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째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금치 못하며 평양시와 황해남도에서는 각각 1만 5 000여명, 5 500여명의 당, 행정, 청년일군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다.

경성군당위원회와 함경남도, 남포시, 초산군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숨쉴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과의 최후결사전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육탄용사가 될것을 결의하였다.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근로청년들도 마치와 낫을 복수의 총창으로 바꾸어들고 조국사수, 혁명보위에 용약 탄원해나섰다.

평양시안의 근로청년 6만 3 000여명은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전선행렬차에 남먼저 올라 진격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결심을 인민군대입대, 복대탄원서에 새기였다.

함경북도에서 20여만명, 황해남도에서 8만여명의 근로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 복대시켜줄것을 열렬히 청원한 사실은 우리 공화국의 《제제붕괴》를 꿈꾸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쑤들과 끝까지 피의 결산을 하고야말 선군조선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무섭게 분출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 접하자마자 전국의 대학, 학교에서 열린 탄원모임들에서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조국통일세대가 될 청년학생들의 결의가 울려나왔다.

라선시의 7 000여명의 청년학생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1950년대 영웅들의 넋을 이어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당중앙을 보위하는 오늘의 에쁜이가 되겠다고 하며 대학에로의 길도 마다한 통성구역 중이고급중학교, 라진구역 라진고급중학교 17살 녀학생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감동되여 각지의 수많은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이 인민군대에 나갈것을 열렬히 탄원하였다.

지금도 전국각지에서 탄원자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조국이 무엇이고 인간의 참된 삶이 어떤것인가를 가슴뜨겁게 알게 된 우리 인민이 수령옹위의 성새, 방패가 되고 조국결사수호의 총폭탄이 되여 지켜가는 혁명의 최고존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대동강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신천군 지남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일군들이 해설자, 선전자가 되여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다가 작업의 쉴참에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원쑤들의 모진 고문과 악형속에서도 혁명가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투사의 투쟁정신은 농장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리당일군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혁명가의 신념을 지켜 꿋꿋이 싸워 빛나는 승리를 떨친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오늘의 총진군길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을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신념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은 농장원들은 투사들처럼 살며 투쟁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더 높은 알곡생산으로 빛내일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리 광 춘

세기를 이어 빛나라,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대한 력사여

청년운동사적관을 돌아보고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절대 대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70일전투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준다.

청년강국, 바로 이 부름속에 우리 청년들을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오고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를 새로운 높이에서 빛내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이 벅차게 안겨온다.

지난 1월 청년운동사적관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은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가슴마다를 얼마나 세차게 울려주었던가.

1월 19일, 바로 그날은 20년전 우리 장군님께서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선포하도록 하신 날이였다.

뜻깊은 이날에 우리 원수님께서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으시였으니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청춘시절을 빛내이며 성장한 천만군민의 심정이 어찌 뜨겁지 않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의 품속에서 이 땅우에 청년중시의 위대한 경륜이 마련되고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이 탄생하게 된것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위대한 력사가 집대성되여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백두산청년강국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적창조물로 웅장하게 일떠선 청년운동사적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참관자들과 함께 사적관의 총서홀에 들어섰다.

총서홀정면에는 청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휘황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태양의 그 품에 우리들도 안긴것만 같은 끓어오르는 격정과 흥분으로 심장은 쿵쿵 높뛰였다.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우러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르는 참관자들의 숨결은 뜨거웠다.

《사적관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립상을 색조각상으로 모신것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수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정말 잘 형상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강사 김원영동무의 이야기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사업을 중시하시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세계를 되새겨보며 우리는 1호실로 향하였다.

1호실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는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작품이 숭엄히 안겨왔다.

나의 청년학생운동은 내가 1926년 6월 화성의숙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였습니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자한자 읽어나가며 조선청년운동의 새 기원이 열리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느라니 우리에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쓰신 회고록의 구절이 울려왔다.

세상에 청년사업처럼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이다,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것이다. …

청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기대가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듯 뜻깊은 글발을 남기시였겠는가.

인류력사의 어느 갈피를 보아도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에 벌써 비범한 천리혜안의 예지로 혁명의 투쟁목표를 제시하시고 참다운 새 세대 열혈청년들로 주체형의 혁명적전위조직을 결성하시여 새로운 시대를 펼친 위인은 없었다.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고 탁월한 령도자이신 우리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면서 우리는 2호실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2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민청을 창립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새 민주조선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사적내용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새 조선의 청년들을 하나의 민주주의적인 대중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해방후 복잡한 시기에 여러 정당들은 해방청년동맹, 학생동맹, 무산청년동맹 등 청년단체들을 조직하여 청년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당기려고 하였으며 계급적원쑤들은 그리스도교청년회, 떡의청년동맹 등 반동적인 청년단체들을 조직하여 청년운동을 분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청년운동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계층 청년들을 하나의 대중조직에 묶어세울수 있는 민청조직로선을 내놓으시고 김익현동지를 비롯한 항일투사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시여 민청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35(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창립되였다.

민청이 창립됨으로써 조선청년들은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 나라의 억군으로 억세게 자랄수 있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청년들은 나라의 기둥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민청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던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었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청춘시절을 빛내이며 자기 발전의 뚜렷한 자욱을 력사에 새긴 조선청년들의 값높은 삶에 대하여 우리는 3호실에서 더욱 절감할수 있었다.

전선으로 탄원하는 청년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작품이 안겨왔다.

당시 민청중앙위원회에서는 상무위원회를 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송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을 토의하고 청년학생들속에서 애국적참군운동을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쟁이 일어난지 두달도 안되는 기간에 130여만명의 청년들이 전선에 탄원했으며 전쟁기간에 배출된 600여명의 공화국영웅들가운데서 400여명의 영웅들이 청년들속에서 배출되였다.

전후시기에도 우리 청년들은 전화의 나날에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전후복구건설장들과 탄광, 광산 등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음호실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는 조선민주청년동맹 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청년들의 혈불시위를 보여주는 사진앞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민청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몸소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대학생들이 당과 정부를 반대하여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의 청년학생들은 당중앙위원회를 절대지지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쳤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의 혈불시위를 내용있게 큰 규모에서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주체45(1956)년 11월 4일 평양에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 있어본적이 없는 청년학생들의 대규모적인 혈불시위가 진행되였다.

청년학생들은 당기와 공화국기발, 민청기발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혈불을 억세게 틀어잡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옥숨으로 사수해나갈 신념의 구호를 웨치면서 수도의 거리를 행진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지난해 10월의 경축광장에 장엄한 불의 대하가 용용히 굽이치던 모습이 선히 안겨왔다.

지연의 화산분출도 시간의 흐름속에 꺼질수 있지만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청년들이 틀어쥔 충정의 혈불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욱 힘차게 타번지는 영원한 혈불이였다.

4, 5호실에서 우리는 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강사를 따라 2층으로 향했다.

2층 6호실에 들어선 우리는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생활과 풍모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일어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민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편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새로 개편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로청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내용들을 우리는 여러 전시실들을 돌아보면서 더욱 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우리의 청년동맹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동맹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주체의 청년운동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한자한자 새겨안는 우리에게는 장군님께서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척후대,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잊지 못할 나날들이 되새겨졌다.

세계의 많은 청년조직들이 당의 령도에서 떨어져 마가을락엽처럼 버림받고있을 때에도 우리 당은 청년들을 믿고 혁명을 하고있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고 청년들에게 혁명의 혈불봉도 몸소 넘겨주시였으며 청년동맹창립 50돐을 맞이한 력사적시각에는 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청년동맹기발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이 위대한 경륜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만을 억세게 걸어올수 있었고 조선청년의 영예와 존엄, 전투력을 더 높이 떨칠수 있었다.

자신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문제가 중요하기때문에 혁명활동을 시작한 첫 시기부터 청년운동을 중시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왔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참관자들의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였다.

전시실들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진문헌들과 명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선청년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사적관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 년대기별로 꾸려진 전시실들에 정중히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물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혁명의 만년재보, 국보중의 국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11호실과 12호실을 련결하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복도의 벽면들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배출된 청년영웅들의 사진들이 나붙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났던가.

청년영웅들의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데 강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영웅들의 사진을 보아주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전실에서 배출한 영웅들의 사진을 여기에 전시하자고 해도 벽면이 모자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청년들이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청년들은 얼마나 복받은 청년들인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더더욱 뜨거워졌다.

청년 청년운동사적관은 주체적인 청년운동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대한 력사가 영원토록 빛을 뿌리게 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우리 조국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청년운동사적관 참관을 통하여 더욱 확신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주체적인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며 우리 조국은 백두산청년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채 히 성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출하고 새로운 영웅적투쟁기풍을 창조하자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가 28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여 새로운 만리마속도로 최후승리를 향해 비약하며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갈 열의에 충만된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옥숨으로 사수하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모두다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당 제7차대회》, 《공동구호과업관철》, 《충정의 《70일전투》》를 비롯한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찬가》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중대회에서는 김능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신의주방직공장 지배인 김창석,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신의주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국,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백학룡, 일군들을 대표하여 도당위원회 비서 안경근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당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충정의 70일전투를 벌기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이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부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할 불타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충정의 70일전투기간 정치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적으로 틀어대여 도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중적영웅주의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수풍발전소와 태천발전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과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을 용솟음치게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당면한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하며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양어장들을 더 잘 꾸리고 축산기지들을 활성화하며 농장마을들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명제품, 명상품들을 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원쑤격멸의 의지로 열혈의 심장들을 펄펄 끓이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과 신의주학생소년궁전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청춘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중대회에서는 박영호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재령광산 지배인 김정식,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벽성군 시원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은옥,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부위원장 리금남, 일군들을 대표하여 해주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명남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을 믿고 일어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들로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은률광산, 재령광산의 로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최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제철소들에서의 생산정상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학생소년궁전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건설을 비롯하여 도인의 모든 대상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다그쳐 끝낼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부문에서 관개시설건설과 보수, 양수설비준비, 물화보사업 등을 적극 내밀기 위한 장악과 지휘를 짜고들며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늘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을 부쩍 늘여 영농작업에 필요한 기계와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인의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답게 중요대상건설장들과 협동전야에서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군중대회에서는 박정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 김영만,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안변군 천상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우정숙, 청년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육영철, 일군들을 대표하여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상철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인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과 함께 영웅적인 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의 페지들을 새긴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안고 승리의 5월을 뗏뗏이 맞이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무조건 끝내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며 원산청년발전소와 안변청년2호발전소,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등 도안의 인민경제 선행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종자확보에 힘을 넣고 영농물자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뜻깊은 올해 협동벌마다에 풍요한 작황을 펼치며 원산구두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인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며 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들이 《백두의 칼바람에 들을 달고 조선혁명의 심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쪼아박고 주요전투장마다에서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림경만 시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라선건설사업소 지배인 최영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한광성, 청년들을 대표하여 시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장룡길, 일군들을 대표하여 박영길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충정의 70일전투는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총동원전, 총결사전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70일전투를 통하여 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련이어 창조하도록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업부문에서 논밭의 지력을 높이고 농사차비와 농작물비배관리를 짜고들어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며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이 광광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70일전투기간 속도뿐아니라 질을 높이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라선건설사업소를 비롯한 건설부문에서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들, 살림집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군들이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몸이 열조각, 백조각이 나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진짜배기일군이 되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철저히 뿌리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일군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당, 위대한 조선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옥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혁명직구호들을 힘있게 부르며 거리들을 누벼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남 포 시 군 중 대 회 장

70일전투의 모든 전선에서 질제고를 최우선시하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전시회는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에서 모두가 새 기적, 새 기록창조의 주인공이 되려는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열의는 지금 비상히 높다.

지난 1월에 청년문동사적관 건설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개건공사를 끝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린 지도국이래 여러 단위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얼마전 지도국적인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가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293종에 11만여점의 건설장비 및 기공구들, 190여건의 창안품들과 98건의 과학기술자료를 내놓은 전시회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공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건설부문에서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그 준비가 잘 되면 성과는 확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건설에서 설비, 기공구를 원만히 갖추는 문제는 공사의 속도와 함께 질적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이번에 지도국적인 전시회에 나온 혼합기와 수직권양기, 각종 건설자재를 제량하는 기재들과 수평기, 미장칼을 비롯한 능률적인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은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도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청년돌격대원들이 기술혁신과정에 창안제작한 건설장비 및 기공구들이 수많이 전시되여 건설의 속도와 질보장을 위한 토대가 더욱 확고히 갖추어졌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전시회가 그렇듯 뚜렷한 성과를 안아오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전시회를 앞두고 지도국일군들은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론의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년례적으로 진행되는 전시회라고 하여 종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새롭게 진행하자는데로 의견을 합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전시회를 70일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현시기 당에서 중시하는 정책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한것이였다.

일군들은 우선 전시회에 앞서 모든 참가단위들에서 자체로 만든 건설장비와 기공구의 가지수를 늘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식으로 만들 때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줄수 있는 교리가 여기에 있었던것이다.

현시기 당에서 중시하는 국산화의 불길은 결코 제품생산단위에서만 타올라야 하는것이 아니다. 건설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투쟁을 다름아닌 우리 단위에서 힘있게 벌리자. 바로 여기에 건설의 속도와 질을 비상히 높일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일군들의 작전에 따라 전시회과정을 국산화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가 정해졌다.

뚜렷한 목표가 섰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것은 아니다.

김영철, 리영일동무를 비롯한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질감독과 설비, 시공을 주관하는 일군들과 함께 아래단위들에 자주 내려가 자체의 힘으로 능률적인 건설장비와 기공구, 전재를 손색없이 만들어 전시회에 내놓을수 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후에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모든 단위들이 자체로 만든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적지 않게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제6려단의 지휘관, 청년돌격대원들이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의 나날에 터득한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자체로 만든 혼합기와 수직권양기, 제7려단과 3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내놓은 마감공사에 리용할 기공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뿐이 아니다.

전시회에는 자체로 만든 건설장비와 기공구, 다양한 전재들과 함께 시공의 과학화수준을 높일수 있는 창안품들과 과학기술자료들도 수많이 출품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성과속에도 지도국일군들이 이번 전시회과정을 통하여 현시기 당에서 중시하는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사업을 앞선 과학기술로 안받침하여 건설의 속도와 질보장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려는 혁신적인 일본새가 깃들어있었다.

전시회과정에 제2려단과 기술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내놓은 앞선 기술에 토대한 통합생산지휘체계와 미장기계, 수직권양기의 안전보호장치를 비롯한 많은 혁신안들이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았다. 하기에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의 창조적열정이 슴배인 우리 식의 능률적인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주의깊게 돌아본 사람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전시회를 보니 앞으로의 건설과정에 속도와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될수 있다는 확신이 굳어진다.

여러 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기울여 전시회에 내놓은 능률적인 건설장비와 기공구들, 그 하나하나의 건설수단들은 요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시회과정을 통해 당 제7차대회를 높은 건설성과로 빛내이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자강력에 기초한 혁명열, 투쟁열은 그 얼마나 높아지고 건설장마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메아리는 또 얼마나 힘차게 울려퍼질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가늠할수 있었다.

바로 여기에 지도국적으로 통이 크게 진행된 이번 전시회가 시사하고있는 중핵적인 문제가 있었다.

본사기자 지원철

속도는 최대, 질은 최상

◇거창한 비약의 시간표따라 70일전투의 순간순간이 흐르고있다.

전력생산의 동음 울리는 발전소에 가보아도 좋고 나라의 석탄산을 쌓아올리는 수천척지하막장에 들어가보아도 좋다. 건설의 열풍 휘몰아치는 전투장들과 첨단돌파의 분분초초가 흐르는 과학연구기관 등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비상한 전투목표를 내세우고 전례없는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는 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끊임없이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시간을 주름잡는 만리마의 기수들을 부르고있다.

◇속도는 최대, 질은 최상!

바로 이것이 오늘날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 근로자들이 발휘해야 할 공격속도, 창조본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선군조선이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질제고에 대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70일전투에서 우리 당이 요구하는 속도는 단순히 시간적의미로만 특징지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그속에는 더 빨리라는 급진급진한 보폭과 함께 더 높이라는 질적비약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만리마속도이며 만리마의 기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단 몇해사이에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창조물들을 보라. 그 하나하나는 건설물이기전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의 최대의 속도, 최상의 질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기념비들이다.

평양메기공장, 평양장냉이가공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한 표준, 본보기공장들의 전변속에도 광명한 래일을 향해 더 빨리 내닫고 더 높이 솟구치는 우리 조국의 전진상이 비껴있다.

우리 식의 건설물과 생산물들을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더 많이 만들어내는 길에서는 순간의 탑보나 만족도 있을수 없다. 우리가 이어가는 70일전투의 하루하루도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으로 충만된 분분초초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제품을 하나 생산하고 건설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무결한 조국의 만년재부가 될수 있게 창조하여야 한다.

오늘날 현대과학기술과 첨단기술수단들을 떠나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일군들은 인민경제계획수행과 함께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비롯하여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70일전투기간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야 한다. 하여 12월15일품질메달, 2월2일제품, 국제적인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 기업소대렬을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도 최신설계기술, 앞선 공법과 기술, 선진재료 등 첨단건설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해나감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목표가 높아야 보폭도 크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서

제품의 질은 현대적인 생산공정과 첨단과학기술을 떠나 론할수 없다.

최근 정방산종합식료공장 일군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제품의 질적비약을 안아오기 위하여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고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큼직큼직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설비와 생산공정, 제품포장의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쳐야 합니다.》

공장의 원료가공조건은 다른 도들에서도 부러워할만큼 그쯘하다.

주원료인 밀가루를 수입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국내산 밀을 가지고 자체로 가공할수 있는 공정이 갖추어져있으며 강냉이가공만 놓고보아도 놈마가루와 단백가루를 따로따로 분리해내고있다. 이것은 국내원료를 가지고 능히 세계와 겨룰수 있는 식료품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수 있는 큰 밑천이다.

국내원료를 가지고 제품경쟁을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세계와 겨루어보려는 포부도 크다.

그 실현을 위해 공장에서는 현대화목표를 높이 세웠다. 식료공업의 현대화를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우자면 목표부터 높이 세워야 한다는것이 공장일군들의 확고한 견해였다.

당에서 요구하는대로 생산공정을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하자는 호소에 생산자들의 가슴은 벅차올랐지만 과연 우리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일군들은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심어주는것과 함께 높은 목표를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어나갔다. 여기서 중시한것이 자체의 기술력량과 도안의 과학자들에게 의지하여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하나하나 실현해나간것이다.

지난해에만도 공장에서는 도안의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과자, 국수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주민들로부터 제품의 질에 대한 평이 아주 좋았다. 이것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고 그 어떤 최신과학기술점령도 문제없다는 배심을 안겨주었다.

최근에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매 현장마다 지령대화기가 설치되고 제품의 질분석을 신속정확히 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고있다. 이뿐이 아니라 공장에서는 포장공정의 자동화실현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최근 공장의 현대화실현에서 큼직큼직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 현실은 목표가 높아야 생산자대중의 정신력도 그만큼 앙양되며 전진의 보폭도 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책임성은 실력으로 검증된다

평양326전선공장 품질감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감독부문 일군들은 생산품과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국가와 인민앞에 책임졌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원칙적립장에서 제품검사를 깐깐히 하고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비상한 공격속도와 질보장을 동시에 요구하는 70일전투에서 품질감독원들의 책임성은 더욱 중시되고있다.

하다면 오늘날 품질감독원들은 제품의 질을 국가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어떤 일본새를 발휘해야 하는가.

평양326전선공장 품질감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몇가지 대답을 찾아본다.

품질감독원이 합격도장을 찍으면 그 제품은 출하된다. 합격도장을 찐 품질감독원의 마음속에는 자그마한 허용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어느날 연신직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어느 한 전선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던 당당 품질감독원은 한가지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눈에 알리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였지만 전선이 그 무엇인가에 갉힌 흔적이 있었던것이다.

물론 허용되는 오차였다. 하지만 품질감독원은 나타난 현상을 실무적으로만 대할수 없었다.

오늘은 설사 허용되는 오차라고 해도 그것이 점점 커지면 래일에 가서는 불합격품으로 될수 있었다. 불합격품이 나오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는것은 품질감독원의 임무였다.

품질감독소 일군들은 공장일군들과 합심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원인은 전선을 감는 설비의 어느 한 지구가 불비한데 있었다. 즉시 공장에서는 그 지구를 새로 교체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품질감독소 일군들은 그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공장일군들과 함께 제품의 질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앞질러가며 대책을 세웠다.

그 과정에 전선을 감는 설비의 안내로라가 불비한것도 제때에 찾아내여 새로 교체하였다. 절과 전선이 미세하게 갉히는것과 같은 현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였다.

현재 연신직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이 전선의 질적지표는 품질인증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였다. 하여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품질감독원의 책임성은 말로써 표현되는것이 아니다.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국가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려면 높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리철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품질감독소 일군들은 공장에서 새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제품들의 기술경신주기가 부단히 단축되는데 맞게 검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에 따라 힘을 넣고있는것이 주 1차 진행하는 기술학습이다. 종전에는 소장이나 몇몇 감독원들이 강사로 출연하는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품질감독원들이 강사가 되여 출연하고있다.

해당 품질감독원은 자기가 담당한 단위에서 생산하는 전본품들을 놓고 원료입하로부터 제품출하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다른 품질감독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모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제눈으로 보고 점사도 함께 진행하면서 기술학습과정에 습득한 리론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소화하군 한다.

이러한 실력전은 현실에서 응당한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현재 이곳 품질감독소 감독원들 누구나가 수십가지의 제품들에 대한 품질감독사업을 손색없이 해낼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당 제7차대회장에로 향한 우리 천만군민의 발걸음을 멀리 세워보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며 70일전투의 하루하루가 흐르고있는 지금 어느 생산단위에나 있는 품질감독초소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라고 말할수 있다.

품질감독원들은 오늘날 생산적앙양의 열풍은 곧 질제고의 열풍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충성

인민들의 평이 좋고 경쟁력있는 제품개발열의

—평양창광옷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해산신발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세상에 자랑할만 한 멋쟁이공장으로 전변시킨 령도의 손길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았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력적인 령도로 식료공장을 인민들과 체육인들에게 참답게 복무하는 식료품생산기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멋쟁이공장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을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옥순지배인은 못 잊을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지난 1월 22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것이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속에 일떠서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 로정을 돌이켜보시며 공장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한번 나와보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에 장군님을 한번 모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식료품생산기지를 세워주시고 거듭 찾으시여 극진한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왔다는 이곳 사람들의 목소리는 격정에 젖어있었다.

제품견본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된 민족식품견본들을 보아주시며 민족음식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종류를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그마한 점통을 드시고는 점의 가지수도 물으시며 다심히 마음기울이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에 들리니 과학기술보급실에서뿐아니라 생산현장에서도 콤퓨터를 통하여 임의의 과학기술자료들을 볼수 있게 그리고 원격강의도 받을수 있게 꾸리였다는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잘 꾸리였다고, 앞으로 식료박사들이 많이 나올것이라고 하시며 공장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 사연이 우리 가슴을 울리였다.

3층의 상표도안실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들리시여 상표도안을 만드는 정형에 대하여 물으시며 상표도안을 더 잘 만들도록 이끌어주신 자욱이 새겨져있었다.

제품분석정형을 료해하시고 식료품안전성보장에서 제품분석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제품분석을 잘할데 대하여 이르신 제품분석실에도, 통합생산체계의 구축정형을 알아보시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하여 치하하신 종합조종실에도 우리 원수님의 은정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절세위인의 자욱을 따라 우리는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백합과자생산현장으로 향하였다. 마침 이곳에 설치되여있는 라선형미끄럼식운반기로는 비닐봉지로 포장한 제품들이 줄지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 광경을 보느라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형미끄럼식운반기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면서 정말 희한하다고, 이것이 바로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이라고, 생산현장이 깨끗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매우 높은 집약화된 공장이라고 치하하시던 그날의 화폭이 선히 어려왔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으시고 주신 가르치심을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 라선형미끄럼식운반기를 창안제작하여 사람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으면서도 제품을 운반하게 하였을뿐아니라 무진화, 무균화를 보장하는데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던것이다.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와보니 환경도 깨끗하고 제품도 가득가득 쌓여있어 정말 좋다고 환히 웃으시였다.

전반적인 생산공정이 자동화, 무인화되여 생산환경의 위생문화성이 철저히 보장된 공장은 세상에 자랑할만 한 멋쟁이공장이여서 연해연방 우리의 감탄을 자아냈다.

절세위인의 자욱이 력력한 과자작업반이며 4층에 있는 떡작업반도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생산현장이 유리전재로 격폐되여 위생안전성이 잘 보장되여있었다.

한산음료작업반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식료품의 질을 더욱 높여주시기 위하여 마음쓰신 이야기가 깃들어있었다.

고기작업반에 이르시여서는 고기가공제품들을 보시고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은 다 생산해야 한다고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식료공장의 곳곳마다에 그리도 뜨겁게 어려있는것은 애오라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신 우리 원수님의 극진한 은정이였다.

귀중한 시간을 다 바치시며 공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식료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고도로 집약화된 생산공정들을 꾸려놓은것이라고, 과학적인 다신밭에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공간들을 립체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공장을 개건한 결과 부지면적과 로력을 전혀 늘이지 않으면서도 생산능력을 종전보다 1.5배 장성시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현대적으로 훌륭히 개건한 해당 부문과 공장,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일군들, 종업원들, 돌격대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은 모두의 가슴마다에 넘쳐난 격정은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오늘의 환희로운 전변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것임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감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누구나 이렇게 격정을 터치였다.

끊임없이 생산되여나오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니 위대한 어버이의 극진한 은정을 받아안고 천백배의 힘을 내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릴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의 미더운 모습이 방불히 어려왔다. 어찌 그들만이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온 나라의 천만군민이 보람의 열정으로 피끓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를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이다.

절세위인의 자욱우에 전변의 새 모습을 자랑하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그대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축도이기도 하였다.

후대은 마음을 안고 공장구내에 나서니 불멸의 글발이 유난히도 빛을 뿌리며 안겨들었다.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그 글발을 심장에 새기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정력적인 행도로 이 땅우에 장성번영의 새봄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강성국가의 새날은 반드시 밝아오리라는 확신이 더욱 굳건히 간직되였다.

본사기자 김인선

현지보도 막장에 나래치는 비약의 폭풍

천성청년탄광 종합생산지령실에서

여기는 굴지의 탄전 천성청년탄광 종합생산지령실이다.

지령실벽면을 채운 텔레비죤화면들과 련속 들려오는 혁신의 새 소식을 통해 우리는 비약의 열풍안고 세차게 끓어번지는 탄광의 거센 숨결을 안아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지령실벽에 걸린 시계는 3시를 가리킨다.

이 갱, 저 갱에서 련속 전화가 걸려온다.

송수화기를 놓고 갱들의 실적을 종합하는 생산지령원 리철혁동무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린다.

강성갱, 8갱, 3갱 이렇게 앞을 다투며 들어오는 생산실적보고마다 가슴을 쿵쿵 울려주는 흐뭇한 증산소식들뿐이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3갱 삭도 만가동, 코대게획 130%, 아, 쾌찬구만.》

《신바람이 납니다. 오늘전투에서도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겠다고 하면서 모두가 승벽내기로 막을 개내고있습니다.》

이윽고 대화를 마친 생산지령원 리철혁동무가 송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책상을 두드린다.

《기자선생, 뜹으셨지요. 우리 탄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3갱의 석탄생산이 종전에 비해 2배로 뛰여올랐단 말입니다. 2배로!》

사갱에서 또 사갱으로, 말그대로 지심깊이에 위치한 갱이다.

지난 시기 그 심부에서 캐낸 석탄을 탄차로 끌어내자니 고충도 많았던 3갱의 탄부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갱내 삭도화를 실현한데 이어 보다 깊은 지심에 벨트콘베아수송선까지 놓아 운반문제를 풀었으니 석탄생산실적이 이렇듯 쑥쑥 오르는것이다.

파학기술의 기관차가 이끄는 힘은 강하다.

파학기술은 이곳 탄부들에게 만리마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이것이 어찌 3갱에서만 울리는 증산의 동음이겠는가.

강성갱, 8갱을 비롯한 탄광의 모든 갱들에서 탄부들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비상한 열의로 새로운 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개 탄광의 생산량과 맞먹는 석탄이 더 생산되고있다. 바로 이것이 시대가 부르는 기적창조의 불길이 아니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명천

갱내 석탄운반의 삭도화를 실현하여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3월중 지자기현상

3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양지방
2일(19시—21시)
6일(22시—24시)
8일(6시—8시)
12일(14시—16시)
16일(19시—21시)
19일(4시—7시)
23일(12시—14시)
26일(13시—15시)

청진지방
3일(20시—22시)
6일(22시—24시)
8일(22시—24시)
12일(14시—16시)
16일(18시—20시)
21일(22시—24시)
27일(13시—15시)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빛나는 위훈의 페지들을 뚜렷이 새기자

기적창조의 나날에 꽃펴나는 헌신의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발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불꽃튀는 격전의 하루하루가

시 작 이

《모두 자기 위치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의 교대장 한창일동무의 짧으나 힘있는 구령과 함께 전투현장마다에서 보이라상태에 대한 보고가 련이어 들어온다.

《5호기 증기압력, 온도정상!》

《4호기 송풍상태 좋다.》

한창일동무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비껴흘렀다. 지금상태로라면 오늘의 생산실적도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그러나 순간도 마음을 놓을수 없다. 수백℃의 고열과 백수십기압의 증기를 생산하는 보이라에서는 언제 무슨 정황이 발생할지 모르기때문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문득 4호보이라의 미분탄공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보이라의 급탄기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즉시 리인섭, 리정식동무를 비롯한 운전공들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불비한 개소를 퇴치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5분, 10분, 20분…

드디여 급탄기가 다시 용을 쓰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때 같으면 한시간은 실히 걸려야 할 전투가 불과 20분만에 끝난것이다.

절 반

《보이라의 우렁찬 동음속에 어느덧 시간은 살같이 흘러 교대를 끝마친 전투원들이 기업소구내에 나섰을 때였다. 그들모두의 식을줄 모르는 심장의 열기인양 끊임없이 타래쳐오르는 흰 연기를 바라보며 운전공 김은덕동무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 기세로 나가면 앞으로 남은 전투도 문제없겠지요?》

그러자 교대장이 작업반의 막내인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은덕동무, 동무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았어?》

《내 작업신발에는 끈이 없는데…》

《아니, 신들메말이야. 마음의 신들메!》

순간 청신한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울려퍼지는 호탕한 웃음소리…

70일전투의 나날 수도의 민음지한 전력생산기지인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고있다.

《함 께 갑 시 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며칠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의 혁신자부부인 변은광, 량정희동무들사이에 뜻밖의 싱갱이가 벌어졌다.

《당신 작업반의 직포공들이 매일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느라 수고많은데 지원물자를 모두 거기에 보내기요.》

《아니에요. 당신네 작업반원들도 다 같은 70일전투성원들인데 먼저 거기부터 보내주자요.》

직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부부, 비록 작업반은 다르지만 서로 양보하고 위해주는 그 마음은 얼마나 돋보이고 아름다운것인가.

얼마후 지원물자를 받아안고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작업반원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변은광동무에게 량정희동무가 귀속말로 이야기했다.

《오늘계획 150%는 문제없지요?》

어찌 이들뿐이랴.

직장안의 모든 작업반장들이 전투 첫날 성의있는 후방사업으로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지로공 문강순동무를 비롯한 오랜 기능공들이 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속에서도 신입직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다.

한m의 천이라도 더 많이 짜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던중 어느 한 기대에 이상이 생겼을 때였다. 뜻밖의 정황으로 어쩔줄 몰라하는 경험이린 직포공결으로 수리공 리윤성동무가 다가왔다. 그리고는 말없이 기대의 불비한 개소를 퇴치하기 시작했다. 순간 직포공처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꼈다. 그는 다른 작업반의 수리공이였던것이다.

잠시후 다시 활짝활짝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는 기대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리윤성동무는 말했다.

《우리야 다같이 70일전투에 참가한 전투원들이 아니요.》

달 라 진 전 투 목 표

며칠전 한 조사공처녀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초급당일군의 방으로 들어섰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아도 묵묵치 않아보이는 눈빛의 처녀, 그는 조사3직장의 김정향동무였다.

《태양절전으로 년간계획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기어이 5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겠습니다.》

그의 당돌한 제기에 일군은 한순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목표인 4년분에 해당한 인민경제계획수행을 결의해나선 그가 아닌가.

《70일전투소식에 접하고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만리마시대가 아닙니까.》

달라진 전투목표, 만리마시대!

일군은 미더운 눈길로 조사공처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꼭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점령하리라고 확신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으로부터 여러해전 몸소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의 자업모습을 보여드린 김정향동무.

그는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청년전위3중모범초급단체위원장이다.

김정향동무의 달라진 전투목표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에 온 공장으로 퍼져갔다. 뒤이어 작업반과 직장 아니 공장안의 전체 조사공들이 그의 모범을 따라 자기의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어느날 깊은 밤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기세좋게 돌아가는 기대곁으로 조사공들인 리경순, 리혜경, 리옥주동무들이 다가섰다. 쟁쟁 일솜씨로 잦아진 실을 잇던 박일주동무가 뜻밖인듯 그들에게 물었다.

《동무들이 어떻게 나왔니? 조금전에 교대를 마쳤는데…》

그러자 리경순동무가 머뭇거리는 어조로 대답했다.

《우리야 공장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신입공들이 아닌니까. 일주동지같은 혁신자들을 따라잡자면…》

얼마후 신입조사공들은 작업반의 오랜 기능공들과 함께 기대사이를 날렵하게 누벼가기 시작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조사공처녀들의 높아진 전투목표, 바로 여기에는 력사적인 70일전투에서 기어이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이들의 불타는 열의가 그대로 비껴있다.

이 열정, 이 기백으로 공장의 수많은 조사공처녀들이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청춘의 희망 꽃피우는 곳

신천군 새날농장 청년분조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확실히 북중의 가장 큰 복인 청년복이 있습니다.》

70일전투의 거세찬 열풍은 인적없는 산골에 달려와 청춘의 희망을 꽃피우는 신천군 새날농장 청년분조원들의 가슴속에서도 일어번지고있다.

신천군 근로자리 제6작업반에서 뒤물짜기를 따라 돌아가느라면 산중턱에 일떠선 아담한 건물이 나진다. 그것이 새날농장 청년분조원들의 보금자리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분조장 권금일동무와 10여명의 청년들이 생활하고있다.

예로부터 범이 살던 굴이 있다고 하여 범골이라고 불리운다는 이곳에 청년들이 삶의 뿌리를 박은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다.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보람찬 청춘시절을 빛내일 꿈과 열의를 안고 농장의 청년들이 너도나도 이곳으로 달려왔던것이다.

낮에는 수수천년 잠자던 범골이 떠들썩하게 산중턱을 짝아내는 함마질소리가 그칠줄 몰랐고 보름달이 둥실 뜬 저녁에는 희열과 땀만에 넘친 청춘들의 노래소리가 메아리치군 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하지만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려는 청년들의 열정은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청년분조가 조직된 첫날부터 지금껏 분조장으로 일해오는 권금일동무는 분조의 식구가 늘어날 때마다 분조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을 이야기해주군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들은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어 산판마다 염소떼가 더욱 흘러넘치게 할 행세를 가다듬군 한다.

몇해전 3월 어느날 저녁 청년분조에는 난데없이 비상소집구령이 내려졌다. 방목꾼이 방목을 마치고 돌아와 살펴보니 《자라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미염소가 없었던것이다. 밤깊도록 주변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어미염소는 종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후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도 찾던 《자라목》이 3마리의 새끼들을 거느리고 청년분조마당으로 들어서는것이 아닌가.

청년분조원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올렸다. 문제는 그날 아침 방목꾼이 《자라목》이 새끼낳이를 하게 된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끌고나간데서 생겼다. 그러다나니 새끼를 낳게 된 《자라목》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깊은 산속에 숨어버렸던것이다.

이 일로 해서 방목꾼들의 책임성은 더욱 높아졌다.

염소들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새김질은 제대로 하는가를 늘 보살펴주고있다. 염소들을 살붙이처럼 애지중지하는 그들이여서 이름도 정답게 붙여부른다.

《암전이》, 《해뜩이》, 《자라목》…

매해 3월이면 청년분조원들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군 한다. 가을에 쌍불인 어미염소들이 매일과 같이 새끼들을 낳는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생산해낸 염소와 염소젖을 작업반과 농장세대들, 10일유치원으로 보내줄 때면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청춘의 보람이 가득 넘친다.

이러한 나날속에 주변산들에 흰구름떼마냥 염소떼가 흐르게 되였고 분조는 2중모범청년분조로 되였으며 분조장 권금일동무는 청년절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도 지니게 되였다.

그들은 10년세월 축산만 한것이 아니다.

해마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여러정보의 산림에 심고 주변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었다.

우리와 만난 분조장 권금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두번다시 오지 않는 청춘시절을 값있게 살자, 바로 이것이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우리 분조원들모두의 생각입니다. 당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서 청춘의 나래를 한껏 펼치렵니다.》

들리는것은 새소리, 바람소리뿐이건만 청춘들의 희망이 활짝 꽃펴나는 아름다운 곳이였다.

본사기자 홍 성 철

전투원의 량심—나의 일터, 나의 기대

단 1mm 라 도

분명 침목사이간격이 벌어진것 같았다.

(덜된 녀석들, 선로시공때 또 침목이 모자랐던게로군. 아무리 그렇다쳐도 70일전투의 첫시작을 이렇게 떼수야 없지.)

얼마후 덕성한광 5갱 차도소대장 홍성환동무는 소대원들을 이끌고 부족되는 침목감을 마련하기 위해 산판으로 올랐다.

찬바람속에서 여러시간 전투를 벌려 침목감을 넉넉히 마련하고 돌아올 때였다. 나어린 차도공이 소대장에게 말했다.

《소대장동지, 침목사이간격이 제 보기엔 일없을것 같습니다. 아무러면 한차가 탈선이야 되겠습니까?》

잠시후 홍성환동무의 나직하나 엄한 목소리가 모두의 가슴에 찌르릉 울렸다.

《침목의 틈이자 우리 차도공들의 량심의 틈이야. 그것이 비록 1mm라고 해도 70일전투가 시작된 지금엔 절대로 허용할수 없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70일전투가 시작되여 2일째 되는 날 우리는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를 힘차게 내밀고있는 룡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찾아 자연박물관 1호동건설장으로 들어섰다.

봄도가너마냥 끓어번지는 전투장에서 우리와 만난 기사장 허운성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70일전투는 앞으로 68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선뜻 리해가 되지 않아하는 우리에게 직장장 안경호동무가 웃으며 말해주었다.

《당의 명령지시관철에서 래일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깊은 뜻이 담겨진 그 말을 다시금 음미해보는 우리에게 허운성동무는 계속하여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중앙동물원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부탑게 변모시키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던 이들에게 있어서 70일전투에로 부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는 말그대로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 피

물러설수 없는 전투의 하루

룡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관이 되였다. 누구나 두몫, 세몫의 일감을 안고 뛰고있다.

정영주, 김영, 김일찬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안의 일군들이 모두다 현장에 달려나와 한몸씩 맡아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김일진, 안영수, 김용일동무를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떠받들려 불과 이틀사이에 계획수행량은 1.3배로 늘어났다. 그와 동시에 70일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건설자들을 고무하기 위해 지원물자를 안고 찾아오는 가족들도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10여개에 달하는 직장들의 전투장마다에 빠짐없이 선동기재들이 전개되고 2중전원공급체계가 세워져 24시간동안 순간도 멈춤없이 화선선동의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그 아말로 총돌격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전투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어려오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았다.

높은 기능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미장작업을 앞당겨 끝낸 미장공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였다.

조형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미장이여서 아무리 기능이 높은 미장공들도 하루과제를 제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워할 때 시공을 맡아보는 일군들조차 어쩔수 없는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건설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새로운 방도를 찾아 고심하는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의 구슬땀이 어린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며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면 더욱 몰라보게 변모될것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어려왔다.

이름한 난관앞에 주저앉아 오늘의 전투과제수행을 래일로 미룬다면 그만큼 조국의 전진속도가 더디진다는 자각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작업지구를 착상할수 있게 하였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미장작업을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게 하였다.

허운성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조국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건설자들에게는 힘들다고 주저앉을 오늘이 없고 편히 앉아 넘겨다볼 래일이 없다.

바로 이것이 70일전투의 하루하루에 수명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운명을 걸고 순간의 헛됨도 없이 분과 초를 쪼개가며 투쟁하는 우리 로동계급의 참된 심정인것이다.

바로 그 심정을 안고 룡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70일전투일력장을 번져간다.

67일, 66일, 65일… 아직도 70일전투는 두달 남짓이 남아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5월이 눈앞의 래일로 간직되여있다.

만년대계의 전속물을 일떠세우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시간은 오늘 하루뿐인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승철진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룡경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전투원들

자강력제일주의에 바쳐진 거룩한 애국의 자욱 오늘도 력력히 빛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침은 빛나라》에 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민족사적대경사들과 더불어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침은 빛나라》가 널리 보급되고있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우주과학기술과 핵기술, CNC기술을 비롯한 우리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습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침은 빛나라》(림봉철 작)는 1980년대말부터 2010년까지의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자강력에 기초한 나라의 기계공업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장편소설 《아침은 빛나라》가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도 당에 끝없이 충직한 지식인들과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오늘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성스러운 임무라는것을 밝힌데 있다.

1980년대말 우리 기계공업의 자립성은 전례없이 높아졌지만 기계제작수준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비해볼 때 응당한 높이에 올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업국가의 기둥인 기계공업을 다시 한번 비약시키기 위한 현대화문제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할것을 말기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계공업부문현대화의 총적방향은 국산화라고 교시하신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누구보다 깊이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품속에서 대부대를 이룬 우리 지식인들을 궐기시키기 위한 조선지식인대회를 열것을 수령님께 보고드린다. 소설은 이처럼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사상을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혁명령도방식을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는 기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을 보여주는 감명깊은 이야기가 있다.

기계공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명예농장원으로 계시는 농장에서 보내어온 분배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친히 위대한 장군님께 넘겨주시며 기계공업부문에 써달라고 교시하신다.

사연깊은 봉투에서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기대와 믿음을 새겨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은 싹에 불과한 봉화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수자조종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지해주고 고무격려해주신다. 지식인들과 로동계급의 애국심을 그렇듯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여러 기계공장들에서는 첨단급의 기계들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이 활력있게 진행되며 CNC중방전가공반은 국제기계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장편소설은 기계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해나갈것을 결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련의 준령을 헤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가시는 력사적사실들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을 통하여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자강력제일주의의 최고제현자이시고 관철자이시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봉화기계공장에서 만든 새 형의 기계를 보시고 몇내 기뻐하신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고, 일심단결과 총대, 발전된 과학기술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의 구호라고 하시면서 애국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들이 조선이라는 그 이름을 영원히 지켜갈것이며 인민의 뜻으로 서있는 내 나라의 아침은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그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적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과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경제적난관과 식량난이 조성되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커다란 마음속 아픔을 묵새기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병환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주신 20원을 품에 안으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싸움길을 떠나시는 사연을 담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말리는 야전승용차안에서 들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내리신 용단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처럼 혁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래일을 꽃피우는 과학을 떠받들고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을 결속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계공업의 CNC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총대처럼 굳건한 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들을 찾으시여서는 조성된 난관을 타개할수 있는 방도는 오직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우리가 만든 CNC공작기계들이 여러 도들의 기계공장들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수입병에 걸려 외국의 기계들에 대한 미련을 좀처럼 떨어버리지 못한다.

이러한 때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성과라고 해도 실천에 도입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서로 돕고 이끌며 끊임없이 비약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CNC화의 불길속에 점차 한개 공장이 CNC화되고 나아가서 한개 공장이 CNC화를 실현하고 유연생산체계를 도입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그 불길은 기계공업부문만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도 타번지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품들여 발전시키신 우리 기계공업은 마침내 승리의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내 나라에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장엄한 서막이 펼쳐지게 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개척해온 혁명의 길이 얼마나 성스러운 길인가를 가슴깊이 새기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는 심원한 내용이 담긴 친필서한을 보내주시는것이다.

작품은 새 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잊지 못할 력사적사실들에 대한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오늘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근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침은 빛나라》는 다음으로 자강력제일주의를 적극 발휘하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일군들이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생활적인 대답을 주는것으로 하여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으로 되고있다.

작품에는 수십년세월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온 박송봉과 연형묵을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에 대한 형상이 인상깊게 펼쳐지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받드는것은 의무이기전에 량심이였으며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관철을 위해 만짐을 지고 휘고 또 휘는것은 더없는 영예이고 긍지였다.

이러한 정신세계를 지니였기에 박송봉은 당에서 그토록 관심하는 철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해 수력리길도 주저없이 달리는것이며 자기의 병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께 장군님께서 아무 일감도 주시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군이겠는가고 마음속 진정을 아뢰이기도 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앞에 언제나 백옥같은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닌 일군으로 나서고싶은 열망을 안고 사는 연형묵은 한개 도의 당사업을 지도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진행해나간다.

작품은 이밖에도 새 세대 일군인 리정과 오랜 일군인 안시학의 형상을 통하여 자강력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할 때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하는 전위투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수입병에 걸려 혁명과 건설의 전진을 저애하는 제동기가 된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리정은 수십년세월 최첨단을 향한 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 때만이 태양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애국자의 값높은 삶을 지닐수 있다는 운명의 진리를 찾게 된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아침은 빛나라》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펼쳐주신 우리 식 CNC화의 새 력사, 최첨단돌파전의 새시대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갈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차 수

억센 자주적대를 세우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

현시기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다단하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정책은 계속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그 희생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으로 인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대결과 충돌, 마찰이 그치지 않고있다. 그로 하여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개척의 전략적선택에서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들이 제기되고있다.

현실은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자주적대를 철저히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혁명의 길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자주적대를 세우지 못한탓에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된 사실들이 적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지난 수십년간 적지 않은 나라들과 정당들이 자주와 사회주의, 정의와 진보의 길로 나간다고 하면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전략전술적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보면 도중에 자기의 길을 포기한 나라들과 정당들이 적지 않다.

력사적총화는 매개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기의 전략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주적대를 지니고 투쟁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주적대가 약하면 아무리 진보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과 공갈앞에서 쉽게 물러서게 된다. 날로 횡포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공세앞에서 주점이 들어 제정신을 잃으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칠수 있다.

지난 세기 후반기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련이어 무너진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태가 아니였다. 그것은 일찌기 1950년대부터 자주적대를 세우지 못하고 큰 나라의 지휘봉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놀아났기때문이다.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의 일극세계화책동에 당당하게 맞서나가지 못한 결과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잃고 예속과 노예의 비참한 운명에 처한 나라들의 처지는 자주적대를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운명적문제인가 하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강점하에 놓인 나라 인민들은 침략자들의 군화발밑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배일과 같이 무고한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만행에 의해 피를 흘리며 피난민처지에 빠져들고있다.

지금 인류는 자주냐 예속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수 있다.

오늘의 현실은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대를 세우고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책동을 타파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자주적대는 한마디로 말하여 자주적인 립장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과 기풍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발전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자주화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전진운동을 자기의 궤도에서 탈선시켜보려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할수 없다.

자주적대는 혁명적신념과 의지에 기초하고있으며 강한 신념과 의지로 하여 더욱 굳세여진다.

신념과 의지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그것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려는 불굴의 각오와 정신이다.

한때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다가 적지 않은 나라들이 주저앉은 사실은 자주적대를 세우자면 그것이 강의한 신념과 의지에 기초하고있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강의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싸워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자주적대를 세울수 있다. 적들의 총구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심리모략전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견결한 혁명적신념과 의지에 기초한 자주적대야말로 진보적인민이 반제자주위업실현에서 승리할수 있게 하는 필승의 무기이다.

억센 담력과 배짱은 자주적대를 세워나가는데서 필수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광풍이 불아쳐도 자주의 위업,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든든한 배심과 담력을 가지고 미제와 사생결단의 결사전을 벌려 승리하고있다.

발악적으로 달려드는 제국주의세력과 끝까지 맞서싸워 이기자면 그 어떤 난관과 봉쇄도 뚫고나갈수 있다는 강의한 투쟁정신과 함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수 있다는 드놀지 않는 담력과 배짱이 있어야 한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횡포무도한 침략과 전쟁책동에 위압되어 겁을 먹고 주저앉아 신식민지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나라와 민족들의 실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소유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담한 결심과 실천을 요구하는것이 바로 자주적대이다.

자주는 정의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력사의 동은 트기마련이며 진보적인류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라는 신심과 용기를 가지면 결심도 대담해지고 실천에서도 용감무쌍해지기마련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거나 눈치를 보지 말고 대담하게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며 끝까지 실천해나가야 한다. 일단 내디딘 걸은 험악한 산이 가로막고 사품치는 강줄기가 앞을 가로질러도 곧바로 뻗질러나가야 한다는 돌격정신으로 나간다면 무서울것이 없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대담한 결심과 실천에 나라와 민족의 전진이 있고 승리의 담보가 있다.

자주적대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자주적대를 세운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진보적인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기 위해 책동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힘에 의거하고있다. 그들은 군사적우위를 등대고 침략과 간섭, 압력책동을 일삼으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적요구를 마구 억누르고있다.

강자앞에서는 주눅이 들지만 약자앞에서는 포악하게 행동하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이다. 작고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군력을 키우고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 자주적대를 세울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한다.

최근시기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주권시세가 폭락하고있으며 그 나라들은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겪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수십년간에 걸쳐 확대한 자본의 국제화로 인한 후과이다.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당면하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력사적과제이다.

그런데 일부 나라들에서 눈앞의 어려운 사정만 내세우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의 세계화책동에 넘어가 외국자본을 가림없이 받아들이다보니 어느 한 서방렬강이 경제위기를 겪으면 그에 뒤따라 민족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걸을 걸을수 없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대를 세우기 위한 물질적기초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해 제재와 봉쇄를 들이대여 경제적으로 질식마비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조건에서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시하고 내밀어야 할 중요임무이다.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단결된 인민에게는 그 어떤 장벽도 뚫고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그렇지 못한 인민에게는 열린 길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단결된 힘은 만난을 이겨내고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단결된 인민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과도 싸워 이길수 있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세워온 자랑찬 력사이다.

우리 나라가 온갖 시련과 풍파를 이겨내면서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할수 있은것은 언제나 자주적대를 굳건히 세워왔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의 자주적대앞에서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은 실패와 파산을 면치 못한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은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강의한 자주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채 일 출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조선통일의 근본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통일의 근본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내놓았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하고 줄기찬 노력을 계속하여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비핵국가였던 조선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평화협정체결당사자들의 지위는 비핵국가 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변화되였다. 그러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통일을 위한 평수적인 환경을 마련하자는 조선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조선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경우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힌것도,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사태를 평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함에 대한 공명정대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한것도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조선은 부득불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하게 담보할수 있는 보다 강위력한 보검을 마련한 정의의 장거이다.

조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줄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일단 전쟁이 터지는 경우 그것은 조선반도의 경내를 벗어나 련쇄위기를 초래하여 미국의 전략적과떨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다.

오직 조미평화협정체결만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로 된다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이다.

조선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최고위급에서 합의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통일을 이룩해나갈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민족뿐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따라서 이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통일의 당사자는 북과 남이며 통일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도 북과 남이다.

외세가 조선통일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이것은 북남대결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조선통일의 근본원칙》

【조선중앙통신】

독단과 전횡으로 망조가 든다

요즘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의 앞날에 대한 흉흉한 여론이 떠돌고있다. 온종일 암울한 굴속같은 청와대의 골방에 틀어박힌 박근혜가 하는짓이 걸핏하면 남을 걸고들며 랭풍기는 독설과 신경질뿐이니 보는 사람들마다 《유신》독재의 칼날에 숨소리조차 죽이고 무지렁이처럼 살아야 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몸서리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꼴이 얼마나 역겨웠으면 3년전 《친박》이요 뭐요 하면서 박근혜의 치마자락에 휘감겨 놀아나며 그에게 《대통령》벙거지를 씌우는데 앞장섰던자들조차 《잘못 봤다.》, 《자괴감이 든다.》고 하면서 도리머리를 치겠는가.

박근혜의 독단과 전횡으로 남조선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발바리새끼 쫓겨가자 미친개가 뛰여든다고 3년전에 죄많은 리명박역도를 대신하여 독사같이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고앉은 박근혜가 벌려놓은것이란 사실상 력사의 시계바늘을 《유신》독재시절로 되돌려세운것뿐이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집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그리 짓밟히운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악몽처럼 느껴졌으면 입가진 사람들마다 《제 애비 따라하기》, 《그 애비에 그 딸정도를 넘어 제 애비 뺨친다.》고 아유조소하겠는가.

박근혜의 독선과 전횡은 악명높은 《유신》독재자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것으로서 절대로 달리질수 없다. 《세월》호가 침몰되였을 때 역도는 검푸른 바다속에 수장된 꽃망울같은 자식들을 건져달라고 목놓아 울치는 피해자가족들의 애절처절한 통곡을 차겁게 외면해버리고 7시간동안이나 뒤물방에 틀어박혀 제볼장만 보았다. 인간세상을 등지고 오래동안 혼자 살아온 고독증에다 시집도 못가본 늙다리의 고약한 심술증, 인정사정이라고는 꼬물만큼도 모르는 랭혈동물적체질이 몸에 죽 배인 천하의 악녀의 반역적기질이야 어디에 가겠는가. 그런 랭혈한이기에 재벌의 돈주머니만 불구어주는 악법들을 고안해내여 일자리를 잃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짱그리 유린하고 그들을 자살의 벼랑턱으로 내몰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것이다.

제 구미에 맞지 않으면 아이들의 력사교과서도 마구 틀어고치는 치마두른 불한당의 기질,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골방에만 박혀 어리석은 주장만 고집하는 불통기질,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엇서면 그가 누구든 기를 쓰고 앙갚음하는 독살스럽고 앙칼진 기질 또한 애비에게서 물려받은것으로서 수하졸개들까지도 혀를 찰 정도이다. 오죽했으면 《무하들이 굴복을 보여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피력한 녀자》, 《《대통령》의 메이자에 쏘이면 측근이고 뭐고 다 없다.》는 말이 피뢰집권층내부에서 공공연히 통용되고있겠는가.

역도에게서 때없이 발작하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증은 독단과 전횡의 극치이다. 최근 저들의 추악한 반공화국압살기도가 총파산되자 안달복달하며 미친년 널뛰듯 발광하는 박근혜의 불끝은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낸다. 그 누구에게 《빠아른 고통》을 준다고 희멀게 놀아대면서 개성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있던 남조선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사정없이 끊어놓는것도 모자라 저들이 내걸었던 《신뢰프로세스》라는 간판마저 제손으로 박살내고 대결악녀의 알몸뚱이를 드러낸것이 다름아닌 박근혜역도이다. 요즘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한 우울증, 남조선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죽게 된데 대한 피해망상증까지 겹친 박근혜의 분별없는 망동은 림종을 앞둔자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의 미친 악녀 하나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겪고 민족이 화를 당하는것을 더는 참을수 없으며 특등재앙거리인 역도의 제거는 한시라도 빠를수록 좋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허 영 민

올해를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끝장내기 위한 민중총궐기의 해로 만들자

서울에서 괴뢰패당의 반동통치를 반대하는 4차 민중총궐기투쟁 전개, 각계층 군중 2만명 참가

27일 남조선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주최하에 서울에서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 동족대결로 일관된 괴뢰패당의 반동통치를 반대하는 4차 민중총궐기투쟁이 전개되였다.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집회가 있었다.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50여개 단체성원들, 각계층 군중 2만명이 참가하였다.

광화문광장과 서울역광장, 세종로에서 괴뢰패당의 로동개악책동과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규탄하며 투쟁기세를 올리던 4.16련대와 공무원로조,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성원들이 집회장에 모여들었다.

또한 전라남도 보성에서부터 《폭력책임자 처벌하라!》, 《백남기농민 살려내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보름 남짓한 기간 전지역을 순회한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성원들도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로동개악책동으로 로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강행했고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보장공약을 파기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파쑈당국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민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투쟁시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지게 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살인진압에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며 로동개악과 미국산 쌀수입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일본과의 굴욕《합의》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어물쩍해 덮어버리고 미국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강행하는 현 《정권》을 규탄한다고 언명하였다.

집회를 통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올해를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끝장내기 위한 민중총궐기의 해로 만들자고 하면서 다음달 28일에 범국민집회를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괴뢰패당의 폭정을 단죄하며 시위를 벌렸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친미사대에 매달려 남조선을 침략전쟁실현의 전초기지로, 파쑈의 란무장으로 만들고 북남관계를 전면결판낸 박근혜패당을 쓸어버리는것만이 민족통일의 숙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면서 역적무리를 심판하고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고 인민들의 생존권말살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박근혜역적패당이 종말을 고할 날은 멀지 않았다.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

우리 민족의 고유령토인 독도를 어떻게 하나 강탈해보려는 일본의 강도적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남조선의 성신녀자대학교 교수가 23일 폭로한데 의하면 일본은 시마네현청안에 《다께시마(독도) 자료실》이라는것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독도행유권》을 주입시키기 위한 선전놀음에 열을 올리고있다.

나어린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외곡된 내용을 심어주려고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쓰고있다.

독도에서 살다가 일제의 조선강점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떨쳐진 동물을 등장시킨 동화책을 발간하고 그것으로 특강을 하며 강탈야망을 불어넣고있다.

올해부터 사용될 중학교교과서들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것을 버젓이 내돌리고있다.

특히 력사교과서 8종이 모두 독도를 일본의 령토로 서술하고있다.

시마네현측은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일본경계선이 지나가게 오도하여 제작한 지도를 학교들에 배포하였다.

2014년에도 이곳 현의 공립고등학교에서 꼭같은 경계선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하도록 답을 유도하는 시험문제가 나와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독도강탈을 위한 어리석은 책동은 시마네현이 벌려놓군 하는 《다께시마의 날》행사놀음을 계기로 더욱 광신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초기에는 얼마 알려지지 않았던 이 광대극이 오늘은 일본의 모든 주요언론들에 의해 전지역에 대대적으로 전해지고있다.

일부 우익반동들이 만들어 행사놀음이 벌어지는 구역에서만 팔아먹던 《독도술》, 《독도빵》이라는것을 이제는 현의 큰 시장에서까지 판매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독도를 일본령토로 인식시키기 위한 비렬한 움직임이 계속되고있다.

이에 대해 밝히며 교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외곡된 독도교육이 이제는 심각한 형편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적극화되고있는 남남협조움직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의거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제멋대로 주무르려 하고있다.

하지만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대상으로 되여 풍부한 자연부원을 략탈당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불공평한 경제질서를 마스고 자기의 힘으로 경제적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바로 이 공통된 지향을 실현할수 있는 길이 남남협조에 있다.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남남협조야말로 발전도상나라들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근본방도이다. 이로부터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를 다그치고있다.

지난달에 앙골라와 잠비아가 경제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남아프리카와 리베리아가 경제와 무역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망해각서에,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 무역, 상업 등 분야에서 협력할데 관한 여러건의 망해각서에 조인하였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농업, 제조업, 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에짚트와 이란은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와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관한 협정들을 각각 체결하였다.

지난 1월 30일과 31일에 티오피아에서 진행된 제26차 아프리카통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은 단결의 기치높이 대륙의 정치경제적통합과 발전을 이룩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이달에 들어와서도 남남협조는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꾸바와 앙골라가 수산업분야에서 협조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토의하였다.

까타르와 파키스탄은 가스공급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까타르는 앞으로 15년동안 해마다 파키스탄에 375만톤의 액화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볼리비아와 아랍추장국련방은 두 나라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공동협조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캄보쟈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로동력과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협정들에, 알제리와 뜨니지가 관광업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협조문건들에, 방글라데슈와 말레이시아는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관한 망해각서에 각각 조인하였다.

이란과 카나다는 공업,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는 카나다대통령의 이란방문과정에 이룩되였다고 한다.

얼마전 이란은 오만과도 경제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인디아와 네팔이 에네르기, 하부구조건설, 운수 등 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여러건의 협조문건들에 조인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남협조는 더욱 적극화되고있다.

현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앞으로도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남남협조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미국특유의 사회악—총기류범죄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는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상점이나 학교, 영화관, 길거리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범죄자들이 마구 총을 쏘아대며 사람들을 죽이고있다. 지어 외국인들까지 파녁으로 되고있다. 최근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중국인류학생이 차를 타고 가면 도중 낯모를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총기류범죄의 희생물이 된 무고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총탄세례를 받고있다.

무력대고 총질을 해대는 사회, 그야말로 《폭력게임》속의 세계라고 해야 할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총기류범죄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지난 1월 26일 워싱톤주의 시애틀시에서 륜협적인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후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씨스코에 있는 한 아빠트에서 말다툼을 벌리던 끝에 서로 총질을 해대며 죽일내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즉사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주의 야간유흥장에서도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올해에도 미국에서 총기류범죄가 더욱 성행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총기류범죄순위에서 단연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있다. 얼마전 로므니아의 한 TV망송이 미국에서의 전쟁시기 사망자들과 평화시기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를 대비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방송은 미국력사에 기록된 남북전쟁과 미국—에스빠냐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 수많은 전쟁들에서 죽은 미국인수는 모두 120만명이지만 평화시기 미국에서 총기류범죄에 의한 사망자수는 140만명으로서 전쟁시기의 사망자수를 훨씬 뛰가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러한 수자를 통해 미국에서 총기류범죄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총기류범죄는 부패한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약육강식의 생존론리, 마음대로 총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것이 《자유》로 정당화되는 미국식《민주주의》, 인간증오와 테롤페덕이 찬미되는 말세기적인 사회풍조가 미국을 총기류범죄의 서식장으로 만들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다. 먼저 쏘면 범죄자요, 먼저 맞으면 피해자이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아이들까지도 총기류범죄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하고있다. 지난해 휴스톤시에서 5살 난 어린이가 자기 형을 총으로 쏘아 중태에 빠뜨렸으며 미주리주에서는 5살 난 어린이가 요람에서 잠을 자고있는 9개월 된 자기 동생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하였다.

청소년들에 의한 총기류범죄로 하여 신성한 교정까지도 《총기문화》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ABC방송과 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청소년들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총기류범죄가 단순히 개별적인물의 행위이라기보다 사회에 존재하고있는 광범위한 난문제들을 반영하고있는것이라고 개탄하였다.

미국에서 사회적제도로 되고있는 총기류범죄는 그 어떤 방비책도 없는 악성종양이다.

집권층이 총기규제를 강화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미국사회의 반동적본질과 부패상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하다.

미국의 수많은 무기업체들은 무기생산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거기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정객들을 후원하면서 총기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있다. 인간증오, 생존본능을 실교하는 폭력적인 내용의 영화, 오락, 출판물 등의 대대적인 류포,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등은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해치고 그들을 범죄에로 몰아가고있다. 지어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범죄를 막는다고 하는 경찰들까지도 죄없는 사람들을 마구 쏘아죽이는 형편이니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를 막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로씨야의 어느 한 신문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경찰들이 매해 근 1 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고있다. 범죄자도 아닌 무고한 사람들이 경찰의 표적이 되여 생명을 유린당하는 미국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더우기 경악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경찰에 의해 살해되는 사람이 각종 테로행위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다. 경찰이 오히려 테로분자들도 무색케 할 살인행위를 수없이 저지르고있으니 미국이야말로 경찰과 범죄자가 따로 없는 썩어빠진 사회이다. 과연 여기에 그 무슨 참다운 인권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단 말인가. 미국이 그 주제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분별없이 놀아대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소롭다.

지금 세계는 총기류범죄와 같은 한심한 인권허물을 안고있는 미국에 침을 뱉고있다.

미국은 여기저기에 헛눈을 팔며 《인권》을 운운할것이 아니라 제 집안에서 풍기는 악취부터 제거해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리 철 혁

이스라엘군의 폭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23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시와 교외에 있는 여러 피난민수용소들에 쳐들어가 실탄과 고무탄을 쏘아대며 란동을 부리던 끝에 8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26명을 체포해갔다. 또한 헤브론시부근에서는 2채의 팔레스티나인살림집을 강제로 허물어버렸다고 한다.

미국의 무기판매책동

미국이 무기판매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22일 이 나라의 UPI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군수독점체인 록키드 마틴회사가 로므니아에 장거리레이다체계인 《TPS-77》을 팔아주기로 하였다.

올해 유럽으로 넘어간 피난민수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일어난 무장분쟁의 후과로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물밀듯이 밀려들고있다. 국제이민기구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23일현재까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해상을 통해 유럽나라들로 넘어간 피난민수가 11만 54명에 달하였다. 또한 이 기간 지중해를 건너가던 도중 4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61033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